4월 수출 1억 859만 달러 기록올 한해 수출 11억 달러 넘을 듯삼양식품 모든 수출 국내 생산  
  
  
  
4월 라면 수출은 1억 859만달러(약 1470억원)로 지난해 4월(7395만달러)보다 46.8%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 모습. 연합뉴스우리나라 라면 수출이 월 1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4월 라면 수출은 1억 859만 달러(약 1470억원)로 지난해 4월(7395만 달러)보다 46.8% 증가했다.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2월의 9291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한해 라면 수출은 9억 5240만 달러로 역대 최고였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 달러를 웃돌 수도 있다.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전세계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 6700만 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배로 성장했다.이처럼 해외에서 한국 라면 인기가 높은 것은 K팝 스타들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끼 식사로 라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최근 한국 라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다. 농심은 해외에서 생산해 현지에 판매하는 물량이 많지만 삼양식품은 모든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한다.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매출 3857억원과 영업이익 801억원을 거뒀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한유정 한화증권 연구원은 “음식료 업종 희대의 서프라이즈(깜짝실적)”라고 말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특히 까르보불닭 등의 인기 덕분에 해외 매출이 85%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은 올해 1분기 75%로 작년 1분기(64%)보다 급증했다.삼양식품 관계자는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마케팅 비용과 판매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 마진율이 높다”며 “밀양공장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한 데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환율상승으로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3조 3635억원으로 라면 대장주였던 농심(2조 4270억원)과의 차이를 크게 확대했다.